

경영지원부
이남희 대리



급식수요 · 추석명절 계란수요 증가 전망
- 생산원가 회복될 듯 -

◆ 동향

8월 들어 두 차례 난가가 인상되면서 산지난가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기준 특란은 101원으로 꺾충 뛰어올라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철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대형할인마트의 계란 할인행사로 재고가 소진되었고,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 저하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계란 공급량 감소가 나타나 산지시세는 반등에 성공하였다. 또한 8월말 개학에 따른 급식소의 대량주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지계란 유통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위로 인한 계란보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오히려 산란율 저하에 따른 수급조절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난가 인상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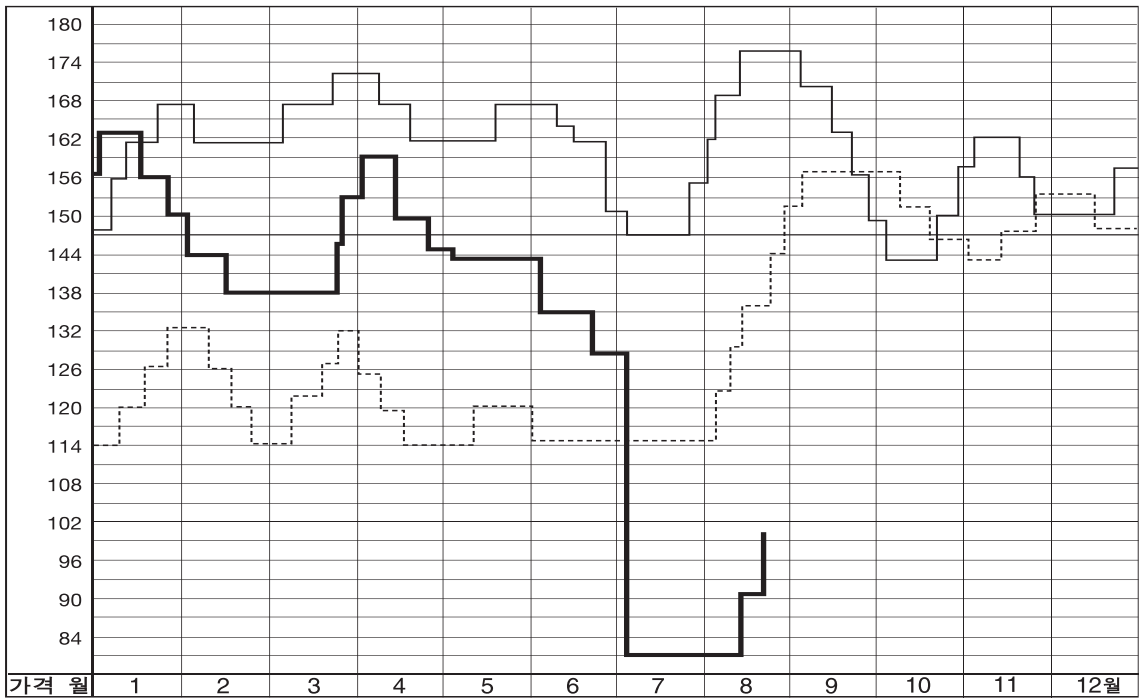
7월 산란중계입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까지의 산란중계 입식누계 마리수는 218천수로 전년동기간대비 37.9% 감소하였다. 난가 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산란부화장에서의 종란 입란양을 조절하면서 같은달 병아리 판매수는 270만수로 전년대비 6%, 전월대비 17.7% 감소하였다.

7월 육추사료와 산란사료 생산량은 28,600톤, 158,543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2.9%, 6.3% 증가하였다. 여전히 병아리 분양수 증가에 따른 육추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중계사료는 5,397톤으로 전년대비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산란노계도태마리수는 287만수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고, 상반기 누계량은 1,676만수로 전년동기간 대비 1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장기화되었던 난가 약세권에서 벗어나 9월은 난가가 회복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연중 계란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석명절이 위치해 있어 추가인상 기반을 다지면서 난가는 안정세를 보이겠다. 상기 자료에서와 같이 상당량 노계도태가 이루어져 생산물량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 난가는 명절 특수와 더불어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란율이 회복되어 원가까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으나, 얼어붙은 경기와 과채류가격의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원가선인 120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0-- 2011- 2012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3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4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5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6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1,150	886
8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9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1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11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12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계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